

술과 禮節

李 勳 鍾

(전) 건국대학교 문리과대학장

I. 술은 高貴한 것이다.

술의 起源을 놓고, 깊은 山中에서 저절로 쌓여 醱된 果實의 香臭와 맛을 즐겨 먹고 원숭이들이 興이 나서 날뛰는 얘기가 곧잘 引用된다. 原始時代의 술은 自然으로 生産되는 果實이나 蜂蜜의 糖分이 變化한 것이었으나, 遊牧時代에는 家畜의 糞으로 乳酒를 만들게 되고, 農耕時代에 접어들면서 穀物로 빚는 穀酒로 發展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原始人들은 醱酵現象을 增殖의 象徴으로 받아들여 豐饒와 連結지어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一部에서는 술에다 물을 섞어서 神께 올리는 風도 있었으니, 술을 女性으로 물을 男性으로 풀이한 것이다.

그리하여 神聖하게 神께 바쳐지는 이 술은, 現實生活에서도 옷사람에게 供饋하는 가장 所重하고 尊貴한 食品으로 꼽히게 되었다.

醫學 醫術의 醫는 釀로도 쓰였는데 이것은 술이 巫術하는 이의 손으로 만들어져, 醫藥으로 쓰이었음을 뜻한다. 攝取하자 이내 生氣가 돌고 血行이 促進되는 술의 뚜렷한 效用은 老人이나 衰弱한 患者에게 훌륭한 藥劑의 作用을 하였던 것이다. 醱酵하는 神祕한 過程을 거쳐 生産되는 이 술은 차츰 儀禮用으로 重要な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詩經에도 이르기를 “爲此春酒；以介眉壽라”하여 獻壽하는 用途를 讚美하였고, 또 “爲酒爲醴；蒸卑祖禮；以洽百禮；降福孔皆”라 “술과 단술로 祭禮를 다하니 내리는 福이 그치지 않다”고 顯揚하였다.

II. 술에 關한 禮節

술이 이미 崇高한 食品이다 보니, 어른께 바치어 餘醴를 내리시면 다소곳이 받을까 함께 즐길 階梯가 못되며, 따라서 和氣를 돋우어 즐기는 것을 同輩들 사이의 것으로 되고 말았다.

담배도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불을 붙여 빼는 方式이 正常되지 못하다 하여 妖邪스러운 풀 - 妖草 - 로 指目되

어 나라에서도 禁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一部 老人乃至 上流層에서는 烟배를 가라앉힌다는 등 藥效를 핑계 삼아 吸煙하다가 一般으로 普及된 것이라, 어른과 맞對해서는 피우지 못하는 것으로 굳어졌던 것이다.

한편 술도 藥劑를 넣고 빚거나 再蒸溜해서 藥으로 服用하게 되자, 나라에 巫魅이 들든지해 禁酒令이 내린 아래서도, “藥이니까...”하는 式으로, 特權層에서나 마실 수 있던 것이라, 自然 階層間에 漸漸 層下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單純한 會席에서도 되바라지게 고개를 젓겨들고 마시기에는 매우 거북한 食品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이것은 따로이 言及한 데는 없으나, 술을 먹으면 自然 말과 行動이 헤퍼지기 때문에, 어른을 모시는 자리에서는 自制해야 되는 것으로 굳어버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III. 술을 마시는 자리

술을 마시되 陶淵明의 歸去來辭에서처럼 “引壺觴而目酌；眄庭柯而怡顏”으로 혼자 즐기는 例도 있으나, 特別한 境遇고, 藥用이라 하여 消化를 돕기 爲한 食事 때의 飯酒, 잠이 오라고 마시는 睡酒, 여름철 땀흘리고 出入했다 돌아왔을 때의 藥燒酒 등은 대개가 相對가 없어 酒席 측에는 들지 않는다.

가장 대견하고 所重한 것은 손님 接待用이니, 奉祭祀·接賓客은 規模있는 家門의 基本態度였다. 蘇東坡의 夫人처럼 “我有斗酒，藏之久矣，以待子不時之須”하게 되어야 賢夫人으로 꼽혔었다. 祭祀지내는 節次로 볼 때 初獻 亞獻 終獻의 三獻이 있고, 獻爵 때마다 盃를 따로 올리며, 마지막 盃를 올리고 나서도 添酌하여 더 權한 위에 飯蓋를 열게되어 있으니, 이것이 옛날 가장 鄭重하게 食事대접하는 方式의 再現인 것이라, 이런 境遇에는 對酌이란 꿈도 못꿀 일이고, 따듯한 接酒를 갈아드리며까지 그저 精誠껏 받들어 모시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이다.

宗廟와 成均館의 大祭에는 舞樂에 따르고, 獻爵에 앞

서 幣帛드리는 節次가 있으니, 옛날 읍은 손님 대접에는 膳物도 드리고, 音樂이나 舞蹈도 걸드려 보여 드려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檀園 金弘道の 耆老世聯契圖라는 大幅作品은 開城滿月臺에서 그 고장 故老들을 모시어 宴會하는 光景인데, 實際의 情景를 如實하게 그리어 啓發되는 바 많다. 그 中에서도 酒按床은 各自가 따로따로 받았는데 이것이 옛날의 읍은 格式이다. 그림에도 層階 아래로 손을 모시고 온 人馬가 웅성거리는데, 손은 適當한 때 自己의 床을 그들에게 물려주어, 다시 그들대로 食事토록 했던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宴會마당 북판에 樽所를 차려 놓고, 술은 따로이 떠서 들고 다니며 돌리는데 이것이 옛날의 읍은 法이다. 筆者 어렸을 때 故鄕에서 동네 잔치를 보았는데, 명석을 連幅해 깔고 遮日을 친 아래로 갓 쓴 老人들이 順序 따라 둘러앉고, 일꾼들이 床을 가져다 앞에 놓고 막걸리를 한사발 그득히 따라 놓으면, 손은 먼저 콩나물 삶아 무친 것을 한 젓갈 집어 자시고는 그 술을 주욱 들이키고, 다시 나물을 집어서 按酒를 하여 그것이 한바퀴 도는데, 못 자시는 이는 그것을 지오라 하여 뿌이나 넘겨 동이에 되따르고 바닥에 조금 남긴 것을 마시고는 다음 차례로 넘기는 것이었다. 이것이 巡杯인데 두어 巡 도는 것이 善通이고, 各自 앞으로 장국상을 내고 세 巡씩 돌리거나, 藥酒를 맑은 술로 내면 아주 잘 차린 잔치로 쳤다. 이런 때 藥酒 못 자시는 이를 위하여 甘酒를 따로 마련하는 것도 보았다.

그런데, 우리말 中에 남에게 술을 대접하면서, “藥酒 한 盞 받겠습니까”하는 것을 흔히 듣는데 宴席에서 술은 自己 앞으로 받는 것이다. 추접스런 영감이 술을 지우고 안 자시는 이더러,

“그러지 말고 받아서 날 주지 그랬어?”

하는 것도 들었는데, 이렇게 술은 各自 앞으로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方式의 酒席에는 父子가 한자리에 앉아 마시는 境遇가 있다. 하나는 祭祀 끝난 뒤의 受胙- 곧 祭物을 내리어 子孫들이 나눠 받는 飲福자리니, 그것이 자손된 이의 道理였고 이 亦是 次例대로 順序를 따라 마시었다. 둘째는 鄉飲酒禮, 온 洞理가 年齡대로 順序를 따라 앉아서 또 次例대로 술 마시는 行事니, 洞理의 協同과 秩序를 다짐하는 모임으로서, 農家月令歌에는 講信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옛날의 酒席은 興겹게 논다는 趣向보다는, 一鍾의 儀式으로서의 性格이 한결 짙게 깔려 있었다.

IV. 酒席에서의 禮節

우리나라 初學敎材이던 千字文에는 “絃歌酒誦, 接杯

舉觴”이라고 나 있는데, 接자에 交자와 같이 주고 받는다는 뜻이 있어, 接杯를 盞을 주고 받는다는 뜻으로 解釋한 데도 있으나, 꼭 지금과 같이 주고 받고 하는 行動이었는지 밝힐 길이 없다. 舉觴의 觴이 술잔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說文에 “觴, 實日觴, 虛日罍”이라 나 있어, 술을 부어 채운 盞이라, 盞에 술을 채워 손님에게 드린다는 뜻이지, 지금처럼 빈 盞을 주고 酒煎子를 들어서 부어 채우는 形式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酒席에서는 自然 對話가 부드럽게 풀리기는 하지만 자칫 感情이 激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주고 받기에 가장 神經이 쓰이는데, 李太白의 春夜宴桃李園序에도 “幽賞未已, 高談轉請”이라고 나와 있다. 市井의 利害關係나 出世, 時局과 政治의 批判같은 것은 高尚한 話題에도 들지 못하는 것이다. 되도록이면 그런 것은 避해 座席을 부드럽게 和氣넘치는 霧圍氣로 이끌어 가려는 努力이 必要하다.

亦是 春夜宴桃李園序에 “開瓊筵而坐花, 飛羽觴而醉月”이라는 멋진 文句가 있어 이를 直譯한 옛글에는 “잔을 날려…”라 한 데도 있으나, 盞이 새처럼 날개를 돌린 羽觴인데 맞춘 表現이지, 對角線으로 왔다갔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같은 글에서 “如詩不成, 罰依金谷酒數”라 하였는데, 同席者 中에서 詩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罰로 술을 먹이겠다는 愛嬌있는 어름장이다. 本來 詩會에서 모은 作品은 軸으로 꾸며 保管하고 轉寫하여 나눠 갖는데, 失格作品은 그 가운데 넣지 않는 것이다. “軸에도 들지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니까, 그날 자리에 모인 이라면 그런 스라스니는 꺼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어른을 모시고 술먹는 坐席에서의 禮節을 두고 禮記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待飲於長者, 酒進則起, 拜受於尊所, 長者辭, 少者反席而飲; 長者舉受醜, 少者不敢飲”

술을 마시면 모든 것이 平素보다 더해지는데, 禮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더욱 切實히 느끼게 한다.

V. 床차림과 宴會席

正式으로 차리는 큰 床에는 水波蓮, 絲紙 등을 裝飾하여 꽃아 現場에서는 먹지 않고 本宅으로 날라다 거기서 다시 잔치를 한다. 그래서 껌새한 中에는 다시 익혀야 먹을 수 있는 中白柱 大白柱 같은 것도 들어 있는 것이요, 結婚때 新郎이나 新婦가 받은 큰 床은 반드시 本것으로 지워보내는 것도, 이런 宮中宴會의 方式을 본받은 것이다.

그러한 큰 床 앞에는 眠床을 차리는데, 앞서 紹介하였듯 몇 盞 飯酒말에 食事를 하게 마련이다. 眠床과

결床으로 格式을 갖춰, 결床에 술과 마른 按酒 果實 등을 올려 놓고, 先飯酒가 끝나면 옆으로 밀어내고 몸상을 받아 食事하게 되는데, 전골이 끓으면 火爐에서 올려놓게 된 전골상을 그 자리에 당겨 놓기도 하나, 形便것 하는 것이지 固定된 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湖南地方에서 하듯, 貴한 손님을 맞아 飯床을 차려서 正餐으로 대접할 때는, 權하는 대로 先飯酒를 받아 마셔가며 천천히 盤中 各鍾 料理솜씨를 골고루 맛보아, 거진 배가 찼을 때쯤 盤蓋를 열고 몇술 떠서 국과 함께 그것마저 吟味하고는 수저를 놓는 것이, 그런 待接 많이 받아본 이의 짐작은 몸가짐이다.

VI. 宴席에서의 習俗

앞서 千字文에서 引用했듯 宴會席에서는 絃歌酒饌한다고 되어 있는데, 筆者는 中國에서 大規模 宴會때 樂師席을 따로 마련해, 恰似 宗廟大祭때처럼 會席 進行에 따라 거기 맞는 音樂을 繼續 演奏하는 것을 目見하였다.

그런데 여기 連繫해 생각나는 것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하는 何如歌를 問病次 來訪한 鄭圃隱을 接待하는 酒席에서, 어떤 方式으로 酌酌했을까 하는 問題다.

지금은 漢詩를 읊으며 노는 잔치를 거의 못보았으나, 예전의 짐작은 本 壽筵에는 主人의 原詩에 모두가 次韻하며 즐겼고, 그런 자리에는 詠詩할 줄 아는 妓生을 陪坐시켜 그것을 읊게 하여 모두가 吟味하였다.

그러니까 時調形式의 短歌를 時調唱 以前엔 그 까다로운 歌曲으로 불렀고, 麗末 當年에는 그 나름대로의 歌妓가 있어, 當時 主客間의 酌酌을 그 當時 曲調에 얹어 불렀을 것으로 보인다.

萬若에 統計數字만 가지고 論한다면 우리나라 時調作品의 好色的인데 놀라겠으나, 그런 內容의 作品일수록 辭說時調에 많고, 이것은 歌曲으로 불리던 時節, 서울 우대에서도 風流客들 사이의 花柳場에서나 주고 받던 것이라, 自然 男女相悅之辭로 기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坐席의 雰圍氣는 新小說期에 이뤄진 彩風 感別曲이란 딱지版作品에 比較的 자세히 나타나 있다.

筆者는 妓生놀음을 體驗할 機會를 별로 가져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宴會席에서 才致있는 應酬周旋으로 坐席을 어우리게 하고 歌舞나 器樂으로 興을 돋우었다.

이런 자리는 매우 짐작아서, 처음 料理床을 對하여 몇盞씩이 오가고 나면, 暫時 모두 佞席에 기대어 물러앉고, 妓生들은 座長을 中心으로 빙 둘러앉아 노래-소리를 들려 주었다. 勿論 伽耶琴이나 춤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손님이 直接 부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

다. 어쩌다 특별한 長技를 가진 멋쟁이 손님이 있으면, 그들 쪽에서 한 曲調 일러 줌소사고 請하여, 그에 酬應해 들려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床가로 다가앉아 몇 盞씩을 기울이고 나 앉아 歌舞를 보고 이것이 料理집의 風俗이었다.

다만, 酒興이 어지간히 높아지다 보면 갖가지 酒令을 내어 억지로 먹이다싶이 하는데, 遇然性 높은 놀이로 술먹는 이를 指定하기도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特技 자랑 - 當時 말로 木枕돌림이었다. 그런 것에 對備해 實生活에 눈맞은 事業家 階層에는 따로이 相當한 水準의 技藝를 지니고 있는 이도 곧잘 있었다.

罰酒야 勿論 큰 盞으로 억지로 먹여 괴롭히는 것이지만, 異常하고 야릇한 몸짓을 시켜 冒免할 길을 터주기도 하였지만 困辱스럽기는 一般이었다.

酒席에 가장 싱거운 것이 內容없는 辱지거리의 連續이다. 이에 對해 옛날 党派間의 눈길이 매섭던 時節, 자칫 滅門의 舌禍로 번지기까지 하였던 때문에 일부러 核心을 흐려 그런 것으로나 逍遣하도록 하였다는 說을 主張한 데도 있으나, 威信 問題도 있는 터라 高談轉清까지는 몰라도 才致있고 內容있는 話題를 豊富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所重한 財産이다.

모든 것이 悠長하던 時節에는 時間에 拘碍없이 놀다가 妓生의 舞宴曲 合唱으로 幕을 내리는 式이었다지만 이제 모두 옛날 얘기가 되었다.

VII. 野外에서의 놀이

답답한 屋內에서 벗어나 自然의 품에 안기는 즐거움은, 또한 格式을 차리지 않고 옷감을 훌렁 벗어던져 罷脫하고 훌가분하게 놀 수 있어 좋다. 봄서부터 花煎놀이 · 踏青 · 장마때 물 넘치는 것을 바라보는 觀瀾; 냇가에 나가 하는 川獵; 丹楓놀이 等等 모두 좋은데, 床차림이 問題다.

그래 저희들 손으로 해먹지 않는다면, 一行의 것을 한 床에 몰아 차려 架子(가자)틀에 얹어, 앞뒤에서 일꾼들이 가마메트 메고 내어오는 式이 行하였고, 또 料理집이 생기며 몇 十圓床 하는 것이 普遍化하면서, 교자상에 차리는 것을 當然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 말의 원뜻을 몰라 뒤섞여 앉는다고 交坐床이라고까지 하게 되었다.

煖爐會라고 擲項과 갖두루마기의 防寒차림으로 山亭에 모여앉자 펄펄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마시는 雪景 놀이가 있다. 「범거짓골」이라고 꼭 전 있는 帽子같이 생긴 무쇠냄비를 활활 핀 火爐에 들여앉히고 국물을 잡아 끓이며, 전으로는 고기와 豆腐를 올려놓아 익혀먹고, 마지막에 밤이나 국수를 넣어 짝 비벼먹고 일어나

는 놀이다.

이러한 들놀이는 모두가 莫逆한 친구들끼리 물러다니며 하는 것이라, 禮儀차릴 것이 없을듯 하지만, 한그릇에 술갈 것같이 뒤섞여 들어가는 式의 攝取法은 이제 조금 改善해야 할 時機가 다가온 것 같다.

江에 배를 띄우고 노는 뱃놀이는, 손님이 없는 坐船에 飲食을 만들어대는 從船이 한켜가 되어 江을 오르내리는데, 거기서 배운 教訓이 있다. 술이 順하여 멋에 겨워 먹다보면 생각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입에 대기 어려운 毒酒를 쓰라는 것이 그 方面 先輩의 助言이 있다.

VIII. 成人式과 사발술

논일을 마치고 호미씻을때 팔을 내뻗어서 든 호미에라, 같이 일하던 20名分の 호미를 걸어도 견뎌내자, 領座님은 아직 애티나는 少年을 불러앉히고 큰 사발로 술을 주었다.

“고개 돌이키지 말고 먹어라”

그로부터 그는 어른과 맛 품아시를 하게 되었다. 素朴하나마 一鍾의 成人式이었다.

國立博物館에 高麗瓷器로 만든 妙한 술잔이 있다. 굽이 달리지 않아 땅에 놓을 수 없게 되어, 마치 뜸단지 一附缸一 같이 생겼는데, 澗松(全榮弼)先生の 說明이다. 出征하는 青年이 말 위에서 받아 마시는 盞이라 이름마저 “馬上杯니라”고… 勿論 青年은 뒤도 돌아다 보지 않고 말을 달려 떠났을 것이다.

IX. 外國風俗의 流入

飲食床을 대하다 보면 本籍이 아리송한 것이 무척 많다. 그렇다고 그 모두를 우리것이 아니니라고 排斥해 버릴 수는 勿論없다.

그런데 오늘날의 酒席에서 順調롭게 接木되지 않을 것이 몇 가지 있다. 집에 오신 老人께 藥酒를 대접하면서 달리 그릇이 없어 큰 盞을 놓았더니, 거기 가득한 燒酒를 한숨에 마셔 버리신다. 아주 憫憫했는데, 그분들 年輩에선 술을 조금 마시다 놓고 다시 마시고 하는 式이 없다. 그런 분들은 會席에서 남의 술잔을 받고도 돌려줄 줄을 모른다. 또 술을 주려면 盞에 부어 채워서 그것을 건넨다. 이런 것은 모두 우리의 傳統方式이다.

또 술잔을 건네주면서 그것을 操心스레 받으면서, 으레하는 人事가 있다.

“제가 먼저 드릴 것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四十年間 日帝 強占下에 굴어져 버린 저네들 酒席의 禮法을 살펴 보기로 한다.

벼슬하는 武士를 사무라이(侍)라 하듯이, 저들은 徹底 主從關係로 맺어진 社會構造다. 조금 格式 갖춘 酒席엔 갔더니, 일매지게 까맣게 옷칠한 床으로 防席하나마다 차려놓았는데, 술 담은 도꾸리-德利-조그만 瓶은 놓였건만 盞이 없다. 그들 事情에 어두운터라 찬찬히 보니, 저 맨 上席의 사람이 主賓 앞으로 가 共進히 끊어 앉는다. 그래 主賓이 술잔을 주고 손수 부어 주니까, 고 조그만 盞의 것을 보는 앞에서 훌쩍 비우고, 그것을 들고 제라리로 돌아와 곁의 사람과 주고 받는다. 한참만에야 내 차례가 왔기에, 앞에 가보니 커다란 冷水가 담기고 그속에 도토리각정이만큼씩한 盞이 아직도 여러개 남아 있다. 主人은 그것을 건져서 나에게 주고 술을 주기에 반아서 마셨다. 그렇게 하는 式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形式 갖춘 자리가 아니라도 酒席에서는 上司에게 술을 달라고 請한다. 그러니까 술잔은 어른이 먼저 주는 것이 저들의 慣習이다.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것이, 저들은 공기밥을 먹는데, 한공기를 먹고도 싹 가서 먹었으면 茶를 부어 준다. 열 공기를 먹고도 그릇안에 밥을 조금 남긴채 내어 밀면 한그릇을 더 준다. 아주 오래된 저네들의 傳統暗號다.

그런데 밥공기를 받았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어도 그것을 일단 床위에 올려놓거나 대었다가라도 나서 먹기 시작한다. 곧장 입으로 가져가면 食貪이 過한 사람으로 蔑視 받는다.

反面 盞을 건네받아 부어주는 술을 받았으면, 酒量이 弱해 못마시더라도 일단 한번 입에 대었다가 床에 놓는다. 그러지 않으면 남이 모처럼 情으로 주는 술을 拒否한 것으로 여겨 매우 不快하게 여긴다.

또 저들의 盞은 적기 때문에 周圍에 있는 모든 사람과 골고루 한번씩 주고 받아야지, 한사람을 찢겨놓은채 다른 사람에게 거둬 勸했다면, 거기서 빠진 사람이 無視 當한 것으로 여긴다.

中國사람은 徹底하게 現實의이다. 巡杯도 아니고 주고 받는 式도 아니다. 座席에 앉으면 술을 채워받은 盞을 두손으로 받들어 勸하고 싶은 相對를 向해 目禮를 한다. 相對와 눈이 마주치면 같이 마시고 나서 다시 目禮하는 것이 人事다. 먹을 줄 모르면 입에 대었다만 떼어도 相關이 없다. 그것은 한 테이블에 앉은 사람에게 골고루 하여야지, 몇을 빼놓고 다른이에게만 거둬 勸하면, 疎外 當한 사람이 좋지 않게 여긴다.

滿洲가 살던 橋胞들의 얘긴데, 겨울이면 저녁마다 술을 마셨는데, 接酒는 언제나 돼지고기 김치전골 한 가지고, 술은 커다란 컵에 啤酒(白酒)를 채워 돌려가며 各自의 量것 마시다 줄어들면 다시 더 붓는 式이었다라

고 한다.

또 乾杯할 때 相對方과 술잔을 맞부딪는 것은 情다워서가 아니다. 中世紀 西洋騎士들 사이에 다른 武士와 술을 마실제, 술잔끼리 부딪어 술이 튀어 섞이면 毒을 냈더라도 같이 죽자는 標示였다니, 오늘날 國家間의 元首끼리 만나도 盞을 맞대는 儀禮는 그 由來를 알만하다.

술잔을 왼손으로 주거나 받는 것을 不快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由來는 이렇다. 男子들 끼리 握手하는 것도 武器를 쥐는 오른손끼리 쥐어 平和를 뜻하는 것이다. 강패社會에서는 왼손으로 盞을 주고 오른손으로 칠 수도 있다는 說明이었다.

X. 맺는말

오늘날 술 먹는 節次마저 混濁해졌으니 어느 한가지만 옳다고 우길 形便이 못된다. 다만 한가지 우리나라의 宴會는 多分히 儀式的인 것이었고, 못 먹겠다는 것을 억지로 勸해 醉하게 만들고야 마는 것은 日本人이 남기고 간 惡習이다. 물은 건너 보아야 알고, 사람은 사귀어 보아야 안다고 하였는데, 親해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술을 같이 먹는 일이다. 氣分이 화 풀리면서 모든 것이 부풀어 나타나는 때문에, 自己의 本性이 숨김없이 들어난다. 그래서 醉中에 眞情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平常時에도 그랬듯이 相對方을 尊重해 주고 저 自身 謙

遜하는 것만큼 옳은 禮儀는 없다. 이것이 옳게 재켜진다면, 特히 外國에 거 들어온 風習쯤 若干이 어설핀들 어떠랴?

이웃에 老人이 한분 살았는데 藥酒를 通히 만들기에 물었더니 對答이 감쩍하다.

“술이란 飲食이 남이 세번 사면 한번은 갚아야 낮이 서는 것인데, 내 形便에 지금 그렇지 못한터라 아예 입에 대지 않기로 하였지요니까”

그래 酒量은 얼마나 되느냐니까, 젊어서는 말술을 먹었노라고 하며, 그는 서글프게 웃었다.

XI. 요약

술의 기원을 보면, 술은 원시시대, 유목시대 그리고 농경시대를 거쳐 점차 발전하였으며 원시인들은 술의 발효현상을 풍요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술에다 물을 섞어 신께 올리는 風도 있었으며 이 술은 현실 생활에서도 옷사람에서 供饋하는 가장 所重하고 尊貴한 食品으로 꼽히게 되었다.

그러나 보니 어른을 모시는 자리에서는 자연히 지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酒席예석의 예절은 되도록이면 좌석을 부드럽게 和氣넘치는 雰圍氣로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는 예절에서 더욱 조심을 하여야 한다.

연회석에서나 야외에서의 술에 대한 예절은 필요하다고 하겠다.